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9)

吾漢氏之甥

오 한 씨 지 생

나는 한나라의 생질이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심화고전연구소 소장)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지역별로 당선자의 소속을 지도에 그려서 표시하였는데 동쪽은 국민의 힘을 표시하는 붉은색이었고, 서쪽은 더불어민주당을 표시하는 푸른색이었다. 동·서로 양분된 느낌을 받아 가뜰이나 남북으로 쪼개진 마당에 다시 동서로 나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섬뜩한 것은 나 하나만의 느낌은 아닐 터였다.

구체적으로는 야권은 192석, 여당은 108석으로 결정되어 84석을 더 많이 차지한 야권의 대승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체 표투를 보면 여당이 45.1%이고, 민주당이 50.5%였으니 두 당의 격차는 5.4%에 불과하였다. 거대양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표 4.4%를 민주당에 다 준다고 해도 54.9%여서 국민의 힘과의 격차는 불과 9.8%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으로 당선자를 84명이나 갖게 되었으니 전체 의석수로 대비해 보면 이 9.8%의 몫이 28석이다. 그러니 이 9.8%에 해당하는 표의 가치는 보통 투표가 치도다 3배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9.8%가 여야 승패의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있었다. 현재 야당이 0.73%를 쳐서 대통령 자리를 내 주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40년 전 박정희와 김대중 시대에도 이와 비슷하였으니 우리나라 선거란 여야가 줄곧 이 10%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었고,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사실 이처럼 막상막하의 두 세력이 선의(善意)의 경쟁을 한다면 경쟁적으로 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워낙 치열하다 보니 조금만 부정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부정선거의 유혹받는다. 그래서 선거법이 정한 규칙은 스포츠 경기처럼 엄격하여야 하고, 이를 심판하는 심판관의 자질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를 정당당당하게 경쟁하여 나라에 이바지하게 할 책임은 입후보자가 아니라 관리자와 심판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관리와 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선거의 관리와 심판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을까? 지난 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으로 임기를 중의 다 채운 시절에 결론이 나서 물러난 사람, 심지어 임기가 다 끝나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하니 후에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판결문은 그냥 의미 없는 공문(空文)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관인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중립적이어야 할 경찰, 검사, 판사가 옷을 벗고 바로 입후보하여 심판이 선수가 된 셈이니 이들이 과거에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의심하게 된다.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서 입건한 수가 2,000명을 훌쩍 넘겼는데, 혐의는 ‘허위 사실’이 제일 많고 역대 가장 많은 수라고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도 임기를 다 마칠 수 있었으니 심판관은 큰 의미 없는 장식품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심판은 외로우며,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서 높은 교양과 철학, 도덕성이 필요하다. 높은 교양과 철학, 도덕성은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제 수탈기를 이어받았고, 뒤이어 북한의 남침으로 3년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당장 먹고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교육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 철학과 도덕, 교양교육은 구색 갖추기였다. 이른바 머리 좋다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경영대, 공대, 의대, 약대, 법대로 몰려갔고, 큰 안목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인 문학, 역사, 철학은 뒷전이었다. 이러한 교육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았던 판사인들 얼마나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까?

제대로 된 인문학적 교양이 없어서, 심한 표현을 쓰자면 인간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은 인간과 사회를 놓고 결단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 판단에는 개인 취향에 따라 얻어진 편향적이고 부분적 지식을 전제로 착각하면서 인간과 사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심하면 편향된 판단을 하면서도 그것이 편향된 것인지도 모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무지(無知)와 무양심(無良心)은 종전까지 심판 자리에 있던 판사와 준 심판 자리에 있던 검사와 경찰이 제복을 벗고 바로 선수로 입후보하여 어느 한쪽 편에 속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얼굴을 드는 데서 짐작된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난번보다 더 많다는 것으로 현재 심판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양심 없이 제복을 벗고 바로 나온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사실 공정하지 않은 심판관이 섞여 있으면 규칙은 장식품이거나 심하면 경기의 흐름을 왜곡시킨다.

역사에서도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이른바 모충(冒充)하는 일, 즉 시쳇말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일이 많다. 서기 304년에 유연(劉淵)이 한(漢, 후에 趙로 바꾼 前趙)을 세운다. 그런데 유연은 흉노의 도각부(屠各部)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도 호연씨(呼延氏)이다. 머리끝부

터 발끝까지 흉노족이다. 그런데 후한과 촉한이 망하고 사마씨의 진(晉)이 건립되자 거기에서 벼슬을 하면서 세력을 키우더니 왕조를 세운다. 그런데 그는 흉노국을 세운다 하지 않고, 나는 한(漢)나라의 생질(甥姪)이니 외가의 한 왕조를 재건해야겠다고 하며 한(漢)을 세운다. 한 유방 시절에 한의 공주와 흉노의 선우(單于)가 통혼하였으니 한은 자기의 외가(外家)라는 것이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족(漢族)을 모충(冒充)한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수(隋)왕조를 건국한 양견(楊堅)은 선비족(鮮卑族)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보육여견(普六茹堅)이고 자(字)는 나라연(那羅延, nārāyaṇa)인데 중원을 쉽게 삼키려고 원래의 성(姓)인 보육여를 양(楊)으로 바꾼 것이다. 어디를 보아도 한족(漢族)이 아닌데, 한족 성으로 모충한 것이다. 또 당고조(唐高祖)이연(李淵)은 수문제 양견의 황후인 독고가라(獨孤伽羅)의 생질(甥姪)이니 그의 외가는 선비족이 분명하다. 이연 본인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흉노와 한인의 혼혈로 보지만, 유반수(劉盼遂)나 왕동림(王桐齡) 같은 사람은 탁발씨(拓拔氏)의 후예로 보니 이연은 이씨(李氏)를 모충(冒充)한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모두 한족 통치를 쉽게 하려고 혈통을 속여 한족(漢族)이라 속인 것이다.

역사의 심판자란 할 역사가는 직필(直筆)을 사명으로 하기에 아무리 숨기려 했다고 하여도 이처럼 밝혀내고 속지 말라 한다. 이번 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도 지난번 선거 재판처럼 질질 끌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편파적 판결, 질질 끄는 판결은 바로 힘자랑이다. 재판하는 엄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힘자랑을 해 본들 몇 번이나 할 수 있겠는가?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으니 그런 판사의 힘자랑도 10년 지나면 끝날 것이고, 그 후로 1백 년, 1천 년 동안 역사의 심판을 받아 편파적 판결을 했다는 오욕(汚辱)을 받을 것이고, 그 후손은 간접적으로 선조(先祖)의 오욕을 뒤집어쓰고 살 터이니, 대대로 내려가면서 후손은 자신이 어떤 잘못도 없는 데 이 천형(天刑)같은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번만은 법 규정대로 6개월 안에 심판을 끝내어서 2024년도의 사법부의 판단은 공정하였고, 엄격하였으며 추상같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켜 준 기둥이 되었다는 칭송을 듣기 바란다. 역사책에 기록된 한 줄의 칭찬은 공룡포(荳籠袍)를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한 마디의 폄론(貶論)을 받는 것은 목에 부월(斧鉞)을 맨 것처럼 무섭다는 옛사람의 말을 새겨 꼭 지켜라.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풀이: 이 표현은 천하, 천지를 뜻하는 건곤과 한 번 던져서 승패를 결정하는 일척이 합쳐진 말로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를 의미한다. 또한 운명을 걸고 어떤 일에 나서 는 대법한 용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출전: 이 표현의 유래는 중국 당나라 시인 한유(韓愈)의 시(詩) 중 하나인 파홍구(滂鴻溝)에서 찾을 수 있다.

격세지감(隔世之感)

사이돌 격, 누리 세, 갈지, 느낌 감.

풀이: 다른 시대를 사는 듯 크게 변화를 느끼는 감정이 표현은 실제로 긴 세월이 흘러 나타나는 감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너무 크게 변해서 긴 세월이 흐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 자주 쓰기도 한다.

격장지계(激將之計)

부딪칠 격, 장수장, 갈지, 셈할 계.

뜻: 장수의 감정을 자극시켜 목적을 이루는 계책
유래: 삼국지에서 조조는 손권에게 유비를 공격하여 형주 땅을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동을 취하겠다고 항복을 요구했다. 손권이 고민하고 있을 때 공명이 손권을 만났다. 손권이 공명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다. 공명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손권은 “유비는 왜 항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공명은 “우리 주공은 천하의 영웅이고 한실의 종친인데 천자를 꺾박하고 조정을 농락하는 조조 같은 역적에게 어찌 항복할 수 있겠소”라고 답했다. 이에 손권과 주유는 격앙되어 적벽대전이 시작됐다.

건곤일척(건곤일척)

하늘 건(마를 건). 땅 곤. 하나 일. 단칠 척.

안동권씨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23차 회의 개최

안동권씨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 회장 권주연) 제23차(次) 격월제 회의가 3월 29일 오후 6시 안동시 평화9길46~13 (평화동) '한정식 청운'에서 회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주연 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호 두 고문,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중근 시중공파회장,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회장, 권오익 대중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사무국장 등 8명이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재안 파종회장친목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인데 일부 회원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참석을 독려하고 신입 회장들을 가입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때 3개 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입 회장과 친목회 회장의 명을 받은 권기원 사무국장이 서로 협의, 신입회장 본인들이 친목회에 가입을 원하면 오는 5월 입회시키기로 했다. 또 안동권씨 대중회 주최 춘향제 때 재안파종회장친목회 명의로 찬조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편 회원 가운데 고인이 된 권인탐 고문과 권순협 전 별장공파회장은 개인 일 때문에 친목회를 탈퇴했다. 친목회는 두 달 만에 한 번씩 격월제로 홀수 달 넷째 주 금요일 모임을 갖는다.

회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4年 4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3.25. ~ 4. 28.
총 납부자 105명
지사 6곳

(이름순)															단위:원		
♣권귀화	30,000	권기형(서울마포)	30,000	권상만(평창)	30,000	권영근(밀양 중앙로56)	30,000	권오덕(예천)	60,000	권오희(강릉)	30,000	권재수(진주)	30,000	권태정(서울송파)	100,000	권흥식(의성)	30,000
♣권오중	30,000	권난희(서울동대문)	30,000	권상필(서울강남)	30,000	권영길(영주)	30,000	권오상(전주)	30,000	권오흥(경기군포)	30,000	권재원(안동 지리)	30,000	권태진(예천)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경상(군산)	30,000	권대각(안동)	30,000	권성덕(영덕)	30,000	권영락(대구 달서구)	30,000	권오양(양산)	30,000	권오흥(경산)	30,000	권정원(봉화)	30,000	권태훈(경기시흥)	30,000	북야공파 20부 400,000	
권경한(포항)	30,000	권대영(서울금천)	30,000	권세원(안동 와룡면)	30,000	권영석(서울은평)	30,000	권오원(제천)	30,000	권용기(안동)	30,000	권종렬(진주)	30,000	권태훈(대구)	30,000	부산종친회 150부 1,000,000	
권규미(경주)	30,000	권덕중(서울성북)	30,000	권순규(서울서초)	30,000	권영선(강릉 울곡로)	30,000	권오일(서울마포)	30,000	권용성(안동 태화동)	30,000	권주연(안동)	30,000	권한욱(대구)	30,000	비전력부위파종중 (원주) 7부 140,000	
권금림(군산)	30,000	권돈호(옥천)	30,000	권순범(경기안양)	30,000	권영신(홍성)	30,000	권오정(강릉)	30,000	권우달(양산)	30,000	권중천(부산)	30,000	권혁근(강릉)	30,000	수원종친회 10부 300,000	
권기석(안동)	30,000	권동술(합천)	30,000	권순복(강릉)	30,000	권영운(경기김포)	30,000	권오정(영주)	30,000	권우식(산청)	30,000	권지안(천안)	30,000	권혁두(울진)	30,000	영천 종친회 120부 2,000,000	
권기억(안동)	30,000	권두일(영주)	30,000	권순석(안동)	30,000	권영조(안동 용상동)	30,000	권오주(강릉)	30,000	권우태(강릉)	30,000	권진홍(전주)	30,000	권혁수(대구 남구)	30,000	통영종친회 8부 100,000	
권기운(안동 법상동)	30,000	권두채(전주)	30,000	권순열(대구)	30,000	권영준(인천)	30,000	권오주(안동 이개리)	30,000	권우택(서울강북)	30,000	권충강(대구)	30,000	권혁창(강릉 포남동)	30,000		
권기정(안동 수상동)	30,000	권명준(강릉 원대로)	30,000	권순필(안동)	30,000	권영환(의성)	30,000	권오진(거창)	30,000	권윤기(성주)	30,000	권태경(보령)	30,000	권혁화(성주)	30,000		
권기창(안동 예안면)	30,000	권민호(산청)	30,000	권승오(강릉)	30,000	권영환(안동)	30,000	권오진(서울강서)	30,000	권인식(경기용인)	30,000	권태광(경기김포)	30,000	권형기(제천)	30,000		
권기창(안동 토일길)	30,000	권병정(양평)	30,000	권승전(강릉)	30,000	권오경(남양주)	30,000	권오창(포항)	30,000	권인준(구미)	30,000	권태두(포항)	30,000	권형순(서울금천)	30,000		
권기철(경주)	30,000	권봉열(안동)	30,000	권영각(강릉)	30,000	권오광(수철,고령)	30,000	권오택(강릉)	30,000	권재만(인천)	30,000	권태은(경기양평)	30,000	권화성(창녕)	30,000	총 7,190,000원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